릴레이 수행일기 〈中〉

배광식
서울대학교 치대 교수

법문 들으려 주말이면 태안사 행
결사중 스님에게 '경주' 불명 받아

비도 오지 않은 하늘에 커다랗게 뜬 무지개는 우리를 환영하는 듯 동리산 태안사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상서로운 조짐에 환희심으로 꾸불꾸불한 산길을 5리는 넘게 달려 당도한 태안사는 요사채가 다 쓰러져가는 고찰이었다.

큰스님께서는 천도재에 참석하셔서 밤 9시는 되어야 끝나신다고 하여, 빨리 뵙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밝은 날 아침에 뵙기로 하였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수형 보살은 도착한 날 큰스님을 못 뵈면 잠이 안올 것 같고, 빨리 뵙고 싶은 마음에 달밤에 법당 앞마당을 서성이다가, 법당에서 천도재를 마치고 나오시는 큰스님을 뵈었다고 한다.

나는 이튿날 새벽 예불에 참여하고 방사로 돌아왔다. 문창호 너머에서 일제히 소스라치게 한번에 시작된 새들의 지저귐이 한밤 내내 지켜온 고찰의 정적을 화들짝 깨우는 것을 화두삼아 안으로 안으로 비추다가, 먼 동이 튼 후 방 밖으로 나왔다.

이윽고 스님께서 한 쪽 기둥이 기운 퇴락한 해회당(海會堂) 마루를 걸레질하고 계시다가, 방 밖으로 나오는 수형과 나를 반갑게 맞으셨다. 삼배를 올리니 맞절을 하시면서 극구 일배만 하라고 사양하신다. 삼배를 마치고 무릎을 꿇고 앉으니 방석을 권하시면서 굳이 편안한 자세로 앉도록 하셨다.

"잘 오셨습니다. 두 분 다 아주 불연이 깊으십니다. 우리들은 부처님 당시나 신라 때나 다같이 공부하던 도반이란 말입니다. 우리 함께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다." 숙식이 편안했는지 살핀 후에 바로 하신 말씀이시다. 엄정하면서도 자상하고 겸손하신 큰스님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 같으셨다. 이렇게 큰스님을 뵌 후 내 금생의 가장 큰 행복은 큰스님을 스승으로 모신 것과 도반인 수형 보살을 만난 것이다.

그 후 매달 한번씩 열리는 큰스님 법문에 900리 길을 90리 길보다 가깝게 한숨에 달려갔으며, 어떤 때는 한 달, 네 번 주말을 모두 태안사에 가서 큰스님 곁에서 보내기도 하였다. 이때 초등학생이던 큰 아이와 유치원생이던 작은 아이는 태안사 주변을 놀이터 삼아 놀곤해서 지금도 태안사를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1985년 10월 결제부터 태안사에서는 22명이 함께 3년 결사에 들어갔다.

결사중인 1986년 4월 28일, 50세 이상 60대의 원로 선승들께서 선풍진작의 취지로 발족한 선문회(禪門會) 모임이 있었다. 큰스님께서 3년 결사동안 산문을 나서지 않기 때문에, 21명의 회원 중 15명의 큰스님들이 태안사로 오셔서 선문회 회의를 개최하고 회칙을 만들었으며, 회장은 연장자이신 성수 큰스님이 역임하게 되었다.

어느 날 큰스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불명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다. 그 때까지는 법철(法哲)이라는 불명을 쓰고 있었다.

"경조와 경주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큰스님! 어떻게 다른지요?"

(계속)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은 삶 뿐" 이라고 말하는 학송 법사(왼쪽에서 두번째).

"禪은 삶 입니다"

견우회 회장 학송 법사
혜암 스님 만나며 선 수행
비교하며 알기쉽게 공부 지도
법 정확히 모르면 깨닫지 못해

"불교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선 존재(bhava)와 법(dharma)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존재는 우리와 상관없이 외부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법은 인식을 통해 알게 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모든 것이, 법 아닌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도 괴로움의 씨앗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작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법입니다."

12월 4일, 서울 인사동의 한 찻집. 아늑한 공간에 15명의 보살, 거사님들이 차를 마시며 법담을 나누고 있었다. 손님들이 보기에 마치 차담을 나누는 듯한 이런 광경은 정도회라는 수행단체의 공부 장면. 학송 최남두(72) 법사가 회원들의 의문점을 문답식으로 풀어주고 있었다. 이번 모임에는 초심자들이 많아 종교의 어원, 삼법인(三法印)을 위주로 한 다양한 토론이 펼쳐졌다.

정도회를 비롯해 중급 불자들의 모임인 다나회와 덕숭총림 초대방장 혜암 스님의 유발제자들로 구성된 견우회를 이끌고 있는 학송 법사는 1963년 백봉 김기추 거사를 만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선(禪) 수행에 매진해 왔다. 이후 혜암 스님의 마지막 유발 상좌가 되어 공부하다가, 85년 5월 18일 혜암 스님으로부터 '견우회'란 명칭과 게송을 받은 학송 법사는 인연있는 도반과 불자들을 위해 선공부 모임을 이끌어 오고 있다.

평균연령 70대에 달하는 재가 선객들로 구성된 견우회의 회장으로서 선문답에 달통한 학송 법사는, 일반 불자들을 위해서는 아함경에서부터 시작해 남방 및 북방불교의 가르침을 비교하며 알기 쉽게 불교를 가르친다. 하지만 신심이 깊은 재가 선객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화두 공부도 지도해주고 있다. 학송 법사로부터 재가자들의 선 공부 방법에 대해 들어보았다.

올바른 교리 이해 중요

▶선(禪) 수행시 주의점이 있다면?

"선은 삶이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삶 아닌 것이 없는데 왜 선을 하느냐 하면 고통없이 즐겁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선문답과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은 선지식의 점검에 생명력이 담겨 잇습니다. 특히 화두의 문답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단독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문답을 공개석상에서 토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삼독 때문에 자각하지 못할 뿐

▶선에서는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요?

"인간은 누구나 부처의 지혜와 덕성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법이 불법 아닌 것이 없고 또 본래불이니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우리에게는 현재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탐진치 삼독 때문에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뿐입니다. 즉 수행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바르게 수행해서 삼독을 멸하고 본래의 참모습을 자각해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꼭 화두를 들어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만법(萬法)이 유식(唯識)'이라면 나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까?

"이 마음이 항상 있다는 견해는 상견(常見)이고, 없다고 하면 단견(斷見)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공(空)하다고 관하라고 합니다. 마음은 공이구나 하는 견해에 빠지게 되면, 다시 친절하게 '만법이 유식'이라고 할 수 밖에 없겠지요. 나 이외 아무것도 없다는 또다른 삿된 견해에 빠지면 더욱 불교와 거리가 멀어지겠지요."

겸손하게 하심해야

▶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이란.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육조단경>에서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대의 본래면목은 무엇인가?'라는 말을 듣고 혜명이 언하에 본래면목을 깨달았습니다. 본래면목을 진아, 본심, 본성, 불성, 주인공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핵심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심경에 우리의 참모습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합니다. 무상하여 실체가 없는 모습을 '공'이라 하고 인연따라 나타나는 모습을 '색'이라고 합니다. 유무를 분별하지 않는 무분별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학인이 공부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선지식을 만나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며 항상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하심하며 적은 선이라도 매일 실천하며 삼보에 귀의해야 합니다. 아함경부터 공부하고 자신있는 내용도 꼭 선지식의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추위도 녹여버린
'수행법 대강좌'

◇수행 붐을 조성하기 시작한 조계사의 '수행법 대강좌'의 첫번째 강의 모습.

전국 각지에서 200여 재가자 참여
참선, 위빠사나 등 모든 수행법 다뤄

쌀쌀한 겨울 밤공기를 무색하게 만드는 재가자들의 뜨거운 구도열 현장. 12월 2일 조계사(www.ijogyesa.net) 극락전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200여명의 참가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조계사청년회가 주관한 수행법 대강좌 '겨울나무에서 봄나무에로'는 이렇게 재가자들의 관심과 열의 속에서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조계사청년회 정우식 회장의 안내에 따라 매일 108배와 공양게 외우기, 인연 있는 모든 존재를 위한 자비기도 등을 청규로 약속하며, 발원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어 108배 정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조계사 주지 지홍 스님의 첫 강좌를 경청했다.

계율의 의미와 종류, 그 기능과 효용뿐 아니라 생활속 수행활용, 기도, 주력, 참선 등 불교수행의 기본 개념을 익힌 참가자들은 다음주 화요일 해인율원장 혜능 스님의 '계율 수행법'을 기대하며 첫 강좌를 마무리 지었다. ▲12월 16일 정인 스님(불회사 주지)의 참회 수행법 ▲23일 청견 스님(법왕정사 주지)의 절 수행법 ▲30일 강선희 보살의 주력 수행법 ▲2004년 1월 6일 정목 스님(정토원 원장)의 염불 수행법 ▲13일 정목 스님의 염불 수행법(실참) ▲20일 김경호 한국전통사경연구회장의 사경 수행법 ▲27일 정각 스님(원각사 주지)의 간경 수행법. (02)735-3724

김은경 기자

感謝의 말씀

금번 저희들의
어머니 全義李氏 壽春靈駕의 喪事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거나 왕림하셔서 격려해주신 여러 어른들의 덕으로
무사히 葬禮를 잘 치렀음에 감사드립니다.
의당 일일이 찾아뵈어야 할 것이오나 우선 紙面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자 김성구(月雲)
김성율 자부 고영아
김성수 유정순
딸 김성순
김업순
김유순
김임순 사위 이종명 一同

2003년 11월 27일 拜上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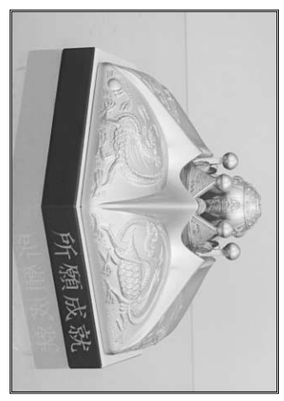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신비의 황금보물 명당육氣방 051)865-9933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특허여러 특허여러 황금덩어리 황금덩어리